

《바다 만풍가》의 노래높이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차넘치게 하라!

인민군대를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로 내세우시여

우리 조국의 바다에서 물결물결 풍겨오는 사회주의바다항기, 창과포에 높이 울려 퍼지는 만선의 배고동소리는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을 격동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대화된 고기배와 어구들로 물고기잡이전투성과를 부쩍 높여나가는 편입 풍어의 노래소리 울려 퍼지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어로전사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웠던가.

선창에 물고기가 연방 폭포처럼 쏟아진다. 포구의 하류항에도 물고기들이 산을 이루었다. 긴 팔을 뻗치고 분주히 돌아가는 기동기들의 고르른 울음, 물고기를 가득 싣고 달리는 자동차들의 경적소리, 경제선동의 힘찬 목소리, 가공장에서 물고기들이 얼음바닥 서린 탱크에서 얼얼한 고동소리와 물고기잡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이룩되고 있는 이 성과는 그대로 불씨가 되고 봉화가 되어 물고기잡이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해전역을 용양마당 광경과 같고 있다.

인민군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 책무원전 선구자, 본보기로 내세우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비약의 날개를 달아주시어 온 나라에 수산혁명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관리를 앞으로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무원전 선구자,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얼마전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찾았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뜨겁게 어려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립소를 돌아보시며 일꾼들에게 이번 겨울철 집중어로전투기간에 하루동안이라도 집안 사기 한해생산량과 맞먹는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록을 창조하고있는데 이것은 소위 자랄만한 한 성과라고, 어로공들은 불리한

어항조건에서도 물고기사태를 알아 왔으며 안해들도 모두 떨쳐나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리고 있는데 예측하지 않았다고 높이 치하하셨다.

그러시면서 사업소가 우리 나라 수산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되었다고, 전국의 모든 수산사업소들이 작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이를 경건히 우러르는 일꾼들의 가슴은 뉘그러다.

2013년 한해에만도 사업소를 2차례나 찾아주시며 나아가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현대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도록 손잡이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그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과를 자기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니 어찌 일꾼들의 가슴이 뭉클하지 않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승엄한 격정에 잠겨있는 일꾼들에게 자신께서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수산부문의 본보기로 만들것을 결심하고 전국의 앞장에서 봉화를 들고나가고 건설해 준것이라고, 사업소가 황금해력사창조의 교향악대 이면에 물고기잡이에서도 그처럼 앞장에 섰다고 만족스런 어조로 말씀하셨다.

잊지 못할 역사의 그날 물고기잡이는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절대로 경험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대적인 어로전투기구에 의거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다고 하시며 그 방도가지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사업소의 일꾼들은 우리 나라 수산부문의 본보기단위답게 선구자의 영예와 긍지를 떨쳐갈 충정의 맹세를 다지고자했다.

충이켜볼수록 인민군대를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로 내세우시여 우리의 수산업을 하루빨리 추켜세우기 위해 바치신 우리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는 끝이 없었다.

지난해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8호 수산사업소를 찾았었다. 그이께서는 일꾼들에게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이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찾아왔다고 하시며 사업소수령인 물고기비린내가 짝하다고, 이것은 우리 군인들에게 매일

물고기를 편지지 않고 굵직굵직하고 싶은 최고사령관과 마모도 뜻도 함께 하는 사업소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총정의 마음이 안아온 소중한 결실이 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셨다. 이윽고 올해는 황금해의 역사가 시작된 해라고, 인민군대는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라고 뜻깊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 경애하는 그이의 이런 대대같은 믿음과 사랑속에서 이 수산사업소가 아닌 전군의 수산부문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겠다.

사실 지난해의 어항조건은 불리했다. 그러나 이 수산사업소에는 당정책결사관철의 폭풍이 일었다. 연유가 부족하면 기술혁신을 하여 연유를 절약하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는 물과구를 열었고 물고기부림시간을 줄이기 위해 하류항에 진공펌프를 설치하기 위한 전투도 벌였다.

이 한물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 물이 되어서라도! 당의 방침을 0.001mm의 편차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결사관철해 나갈 이 무조건 심장의 기를 뽐이며 이쪽 어로공들은 낮에는 트라페에 의한 물고기잡이전투를 하고 밤에는 건착어로작업을 하였다.

포성은 울리지 않아도 바다는 당중앙 결사투위의 전역이었다. 그야말로 《단풍》호를 군함으로, 만천가를 군기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사회주의호전의 승리의 포성으로, 물고기 한마리 한마리를 적진을 들부시는 멸적의 포탄으로 여기고 싸웠다.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꾼들과 포로되는 후방일꾼들에게 대한 및 국가보장수역이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꾼들이 올해에 이룩한 가장 소중한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고 당의 권위를 옹호하였으며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믿음과

신뢰심을 보유했는데 있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자기들을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군대의 일꾼들과 어로공들은 가슴속적정을 심장으로 터치했다.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바다 만풍가》는 원수님 안겨주신 황금해의 영원한 주제가입니다!

방선천리에,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 어 더욱 질게 풍겨가는 사회주의바다항기는 못 잊을 사연들을 천만군민에게 전하여주고있다.

군인들이 물고기를 매일 먹는다고 좋아한다는데 고향에 있는 부모들이 언니 웃음이 저도모르게 나온다고,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향엔 물고기 가득이라는 노래가사가 절로 떠오른다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그 말씀.

식탁에 온통 물고기를 먹으며 좋아할 인민들과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부모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고, 수산사업소의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항기를 맡으니 만신이 물이 풀린다고, 정말 희한한 풍경, 기막힌 풍경, 보인만 해도 배가 부른 호호한 풍경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회일의 세계.

은정님친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쁨 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데 어 또 떠드는 원아들과 과학자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사정을 보고 보시며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함들어오 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하시며 그이께서 한자한자 쓰신 글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황금해력사창조를 위해 바치신 정력적인 영도의 나날들을 우리 인민은 가슴뜨겁게 기억하고있다.

어구들을 생산하는 공장건설을 직접 맡기하시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며 어 공장은 수산전선의 병기창과

같다고 하시며 공장의 현대화를 더욱 훌륭히 실현하기 위한 은정님은 조지를 위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조국은 이렇게 수산부문에서부터 인민생활향상의 물과구를 열어 나갈 현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 기치를 인민군대 수산부문이 들고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황금해의 새 역사를 그리며 짧은 기간에 그리도 광휘롭게 펼쳐수 있었다.

머칠전 인민군대의 한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며 일꾼들에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시대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진다.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물고기를 많이 잡자면 과학수산을 하여야 한다!

사회수산부문의 당조직들과 근로 단체인민군대당정지시사업부문을 본받아 자기 단위 어로공들을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처럼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용호자, 철저한 관철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이 귀중한 가르치심은 전국의 수산부문에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투쟁의 최우명이며 조국의 바다에 언제나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에 바다항기가 가득 풍기게 하도록 하자.

인민군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 책무원전 선구자, 본보기가 되고 황금해력사창조의 앞장에 서있기에 수산혁명의 새로운 불길은 어장마다에서 활활 타번질것이다.

본사기자 김성남

전진과 비약의 우리 시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격동적인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영도아래 매일, 매 시각 눈부신 기적과 신화들이 창조되고있는 총진군경에 환희로운 오늘을 반영하고 끝없이 흥할 정조를 예고해주는 시대들이 태어나 애국의 슬픔이 더욱 높여져 가고있다.

《이제어경!》 우리는 이 땅에 흐르는 사회주의바다항기, 황금해의 력사우에 떠오른 또 하나의 시대를 긍지와 높이 불러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으로써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 세울것입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한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었을 때였다.

수현의 물고기를 며칠사이로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니 너무도 기쁘시어 쏟아지는 찬비도 아랑곳 하지 않고서 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항기를 두고 우리가 황금해력사창조의 기치를 들 때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어로전사들을 굳게 믿고 오늘을 띠어왔다고 커다란 만족를 표시하시었다.

인민군대에서 콩대풍을 류다란 풍경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풍경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는가고 경애하는 그이께서 대답하듯 물고기를 때 누듯도 선포를 드리지 못 하였다.

천리방선초소들과 온 나라 방방곡곡에 희한하게 펼쳐진 류다란 풍경에 어런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눈물겹게 어려와 서었다.

언제인가 일꾼들을 부르신 자리에 서 최근 인민군대들에 가보면 어느 부대에서나 농동사를 잘하여

창고에 콩대풍을 산더미같이 가득가득 쌓아놓았는데 정말 부만 하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선군8경에 그 풍경을 더 포함시켜 선군9경이라고 하였고 하신 그날의 사연이.

전진길, 현지지도의 길에서 농동사방법과 풍경기술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하시고 좋은 풍동자를 마련하신 기본 소식을 농동사를 잘 짓고있는 한 평범한 인민군대지휘관에게 귀속말로 속삭여주시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바다항기, 황금해의 력사우에 떠오른 또 하나의 시대를 긍지와 높이 불러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으로써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 세울것입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한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었을 때였다.

수현의 물고기를 며칠사이로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니 너무도 기쁘시어 쏟아지는 찬비도 아랑곳 하지 않고서 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항기를 두고 우리가 황금해력사창조의 기치를 들 때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어로전사들을 굳게 믿고 오늘을 띠어왔다고 커다란 만족를 표시하시었다.

인민군대에서 콩대풍을 류다란 풍경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풍경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는가고 경애하는 그이께서 대답하듯 물고기를 때 누듯도 선포를 드리지 못 하였다.

천리방선초소들과 온 나라 방방곡곡에 희한하게 펼쳐진 류다란 풍경에 어런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눈물겹게 어려와 서었다.

언제인가 일꾼들을 부르신 자리에 서 최근 인민군대들에 가보면 어느 부대에서나 농동사를 잘하여

동해어장이 전하는 잊지 못할 이야기

물고기풍년의 기쁨이 커갈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태전 12월 어느날 몇달동안에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한 수산사업소를 찾았으셨을 때의 일이다.

사업소를 돌아보시며 수습년만에 펼쳐진 물고기풍년을 두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던 그이께서는 수많은 사연을 풀없이 전하는듯 싶은 바다가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 이 호호한 광경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군인들이 배를 떠 먹는다든 보고를 받으실 때면 너무도 기쁘시어 눈물을 흘리시던 장군님생각이 난다고 첫으신 말씀이였다.

순간 일꾼들은 뿔이오르는 격정으로 눈앞이 뿌이해졌다.

류다른 기념사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해어장이 들켜서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한 수산사업소를 찾았을 때 물고기잡이장교를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물고기사태라고 거듭 외우며 절입장크에 가득 차넘친 물고기대풍에서 오해도로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물고기대풍이 비뚤하게 풍기

병사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성이 하늘에 닿고 바다에 닿아 수습년만에 처음 보는 물고기대풍이 마련된것이 아닌가.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영도의 의도를 앞장에서 관철한 사업소의 종업원들이 인민부력부에 높이 모신 대원님들의 동상을 찾아가 종성의 보고를 올리고 최고사령관과 기념사진도 찍고 하시며 그들을 평양에 초청해주시는 대대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황금해의 새 역사는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의 길에서 시작되었다.

는 절입장크에서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물고기들이 가득 차넘친것을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에게 풍광한 물고기를 배정으로 사진을 남기자고 하시었다.

그러시더니 결에 서있는 일꾼들도 미처 어쩔 사이없이 절입 물고기들이 쌓여있는 절입장크의

나지막한 턱에 스텝없이 앉으시는것이였다.

습기와 소금기가 뺨 자리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먼저 앉으실 줄 모도 생각해 못했던 일꾼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했다. 금해때는 일꾼들이 그이께서 앉으신 자리에 장갑이라도 깔아야 드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없다고 사양하시면서 오려려 일꾼들에게 어서 곁에 앉으라 하시었다.

뜻깊은 약속을 지켜 오고간 편지

이태전 5월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물고기를 많이 잡아 군인들에게 공급해주라고 하시면서 계획을 수행하게 되면 꼭 자신께 편지를 쓰라고, 기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겠다고 가슴뜨거운 약속을 남기시었다.

그이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어로전투를 벌여 수현의 물고기를 잡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편지를 받아보시고 보내 반가워하시면서 어로전투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룩한 수산사업소종업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보낸다고,

짜고 부르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모두가 환히 웃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격정의 눈물이 끝없이 솟구치고있었다.

일꾼들의 눈앞에는 물고기바다를 배경으로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류다란 장갑사진을 보며 최고사령관동지의 은덕으로 자식들이 물고기를 매일 먹는다고 기뻐할 후방가족들의 모습이 선히 떠오르느것만 같았다.

원회는 안겨주는 겨울 정서에 심취되어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8월 25일 일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 데 대한 혁명활동소식을 알리는 방송원의 격정에 젖은 목소리가 울려다.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 《단풍》호고기배들의 고향답게 훌륭히 전변된 수산사업소를 돌아보시면서 수산사업소의 현대화가 물고기잡이성파이라고 하시며 8월 25일 수산사업소에서처럼 현대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릴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자원의 단풍은 락업으로 지고 흰눈속에 자취를 감추지만 《단풍》호고기배들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겨울의 《이제어경》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천리가 쏟아지는 풍광을 헤치

시며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배가 아거나 좋은지 고기배주인들은 저마다 내가 타는 배라고 배고있고있으며 다른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어로공들은 물론 주변사람들모두가 두려워하는 일꾼들의 보고를 받고 시시때때로 배다항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만천가를 날리며 물고기풍년을 안아오는 수산전선의 전투원인 성능이 좋은 물고기

수필 《겨울의 단풍》

배의 이름 《단풍》! 풍요한 대지의 황금나락은 가을계절에만 물결치지않는 내 조국의 푸르른 바다는 은정어린 《단풍》호고기배가 있어 한겨울에도 물고기대풍을 노래한다.

이해 대해 생각하느라 이태전 12월에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찾았을 때 한 일꾼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해 5월 어느날에 있는 일이 라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 수산사업소를 찾았으셨다. 이렇게 태어난 《단풍》호고기배들이다.

《단풍》 그것은 단순히 고기배의 이름이기에 인민의 생활속에 황금나락 물결치기만을 바라시는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 간절한 소원

의 대명사였고 조국의 바다에 서서 절 필요한 수확의 계절을 펼쳐서 주는 소중한 애국의 불씨였다.

강산에는 흰눈이 이채로운 설경을 펼쳐주도 우리 원수님 마음속에는 언제나 천만인민의 행복이 달차듯 푸르지는 풍요한 가을만이 짙어졌기에 은정속에 태어난 《단풍》호고기배와 더불어 겨울이든 더더욱 물고기대풍을 일러는 《단풍》풍이 내 조국의 바다에 펼쳐지고있는 것이리라.

한겨울의 거센 파도우에 붉게 피는 《단풍》정령 그것은 인민을 위해 펼쳐진 황금해의 새 모습이고 위대한 당의 은정속에 온 나라에 물결 풍기는 사회주의바다항기이다.

자원의 단풍은 저도 우리의 바다는 이렇게 사계절 인민사랑의 《단풍》이 더욱 붉게 탄다.

그러나 어떻게 단풍을 자원의 가을계절에만 있다고 하랴. 나날이 높이 울리는 《단풍》호고기배들의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안고 동해의 겨울은 오늘도 풍요한 가을을 자랑한다.

사회주의 내 조국의 황금해에 서만 펼쳐날수 있는 사랑의 절경인 《이제어경》속에 우리 병사들이 누리는 최고사령관복을 전하며, 위대한 당의 인민사랑의 세계속에 사계절 불타는 내 조국의 《단풍》을 노래하며.

본사기자 김준혁

가슴 불래우고있다.

본사기자 김광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리말라츠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팔레스티나 민족당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 각 하

나는 팔레스티나인민과의 세계연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팔레스티나인민에게 뜨거운 전통적인 사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비법적인 정착촌확장정책과 팔레스티나인민들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탄압행위는 중동에서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실현을 가로막는 기본장벽으로 되고있습니다.

나는 무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창건을 비롯한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4(2015)년 11월 28일 평양

리라나 알바니아 공화국 대통령 부 아르 니샤 니각 하

나는 알바니아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4(2015)년 11월 28일 평양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 높이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갈 맹세로 가슴 불래우고있다. -대동강햇빛이혁명사적지에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 세차게 라오른다

전방척후대, 그 믿음 가슴깊이 새기고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 로동계급의 가슴속에는 남다른 영예와 긍지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협있는 건설부대,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척후대라는 고귀한 칭호이다. 연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올해에도 이 영예로운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대고조전투장마다에 자랑찬 위훈을 새겼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어랑천발전소건설장,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새용광로발전소, 라선시피해복구전투장, 서두수발전소 물길관보강공사...

기술집단지경에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수문들과 압력철타를 비롯한 유중한 강철구조물들이었다.

이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발전소완공일이 좌우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기에 발전소건설장에서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에서 제작한 강철구조물들이 도착하기가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다.

하지만 수백이나 되는 유중한 강철구조물들을 특루로 수백이나 떨어진 현지까지 수송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가파로운 명틀과 깊은 협곡이 앞길을 가로막고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단 말인가. 이 물음앞에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사회의건설의 전방척후대, 그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이들의 심장깊이 새기고는 협있는 건설부대내에 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실천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오직 하나의 신념, 당이 준 과업을 자기일내에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이 맥박치고있었다.

이제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꽃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지난 8월, 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앞에는 자기들이 제작한 설비들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보내주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었다.

승평제관공장, 제관조립공장, 시공조립제관공소를 비롯한 연합기업소의 전체 로동계급과

기술집단지경에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수문들과 압력철타를 비롯한 유중한 강철구조물들이었다.

이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발전소완공일이 좌우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기에 발전소건설장에서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에서 제작한 강철구조물들이 도착하기가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다.

하지만 수백이나 되는 유중한 강철구조물들을 특루로 수백이나 떨어진 현지까지 수송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가파로운 명틀과 깊은 협곡이 앞길을 가로막고있었던 것이다.

이제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꽃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승평제관공장, 제관조립공장, 시공조립제관공소를 비롯한 연합기업소의 전체 로동계급과

기술집단지경에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수문들과 압력철타를 비롯한 유중한 강철구조물들이었다.

이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발전소완공일이 좌우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기에 발전소건설장에서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에서 제작한 강철구조물들이 도착하기가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다.

하지만 수백이나 되는 유중한 강철구조물들을 특루로 수백이나 떨어진 현지까지 수송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가파로운 명틀과 깊은 협곡이 앞길을 가로막고있었던 것이다.

이제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꽃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늘어나는 연간계획완수자대렬

9월 방직공장에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도전 사람들! 자기 자신의 일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 오직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있는 지혜와 정력을 다하여 충실히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로력적성과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9월방직공장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공정당조직에서는 년초부터 로동자들이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 빛나는도약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왔다.

당조직에서는 현장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과 함께 매달 혁신자수확도임을 의의있게 진행하면서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숙의와 방송을 통한 혁신자수확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백두산혁명전적지당사, 신천박물관관람사업 등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일군들은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정방공, 직포공 처녀들이 학습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새라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었다.

공정합숙의 봉사자들은 정방공, 직포공처녀들의 생활상도성의것 차려주고 매일 풍우유와 후방물자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봉사활동을 벌렸다.

종합원 자료에 의하면 11월 중순까지 정방공들인 홍성녀, 차신향, 주은경, 직포공들인 최인실, 김정심, 김유경동무를 비롯한 150명의 로동자들이 년간계획을 완수하였다. 그리고 정방공 리춘애, 직포공 김정일동무를 비롯한 15명의 로동자들이 2년분계획을 완수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지난 5월에 준비직장의 기대공리순회동무가 공장적으로 제1면지 년간계획을 완수한데 이어 150명의 년간계획완수자, 15명의 2년분계획완수자가 나온것은 정말 자랑할만 한 일이다.

일군들은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정방공, 직포공 처녀들이 학습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새라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었다.

공정합숙의 봉사자들은 정방공, 직포공처녀들의 생활상도성의것 차려주고 매일 풍우유와 후방물자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봉사활동을 벌렸다.

종합원 자료에 의하면 11월 중순까지 정방공들인 홍성녀, 차신향, 주은경, 직포공들인 최인실, 김정심, 김유경동무를 비롯한 150명의 로동자들이 년간계획을 완수하였다. 그리고 정방공 리춘애, 직포공 김정일동무를 비롯한 15명의 로동자들이 2년분계획을 완수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일군들은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정방공, 직포공 처녀들이 학습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새라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었다.

공정합숙의 봉사자들은 정방공, 직포공처녀들의 생활상도성의것 차려주고 매일 풍우유와 후방물자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봉사활동을 벌렸다.

종합원 자료에 의하면 11월 중순까지 정방공들인 홍성녀, 차신향, 주은경, 직포공들인 최인실, 김정심, 김유경동무를 비롯한 150명의 로동자들이 년간계획을 완수하였다. 그리고 정방공 리춘애, 직포공 김정일동무를 비롯한 15명의 로동자들이 2년분계획을 완수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일군들은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정방공, 직포공 처녀들이 학습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새라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었다.

공정합숙의 봉사자들은 정방공, 직포공처녀들의 생활상도성의것 차려주고 매일 풍우유와 후방물자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봉사활동을 벌렸다.

종합원 자료에 의하면 11월 중순까지 정방공들인 홍성녀, 차신향, 주은경, 직포공들인 최인실, 김정심, 김유경동무를 비롯한 150명의 로동자들이 년간계획을 완수하였다. 그리고 정방공 리춘애, 직포공 김정일동무를 비롯한 15명의 로동자들이 2년분계획을 완수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일군들은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정방공, 직포공 처녀들이 학습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새라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었다.

공정합숙의 봉사자들은 정방공, 직포공처녀들의 생활상도성의것 차려주고 매일 풍우유와 후방물자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봉사활동을 벌렸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축산간지와 양어지, 온실과 버섯생산간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먹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 빛내일 드높은 열의에 힘입어 해주버섯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버섯생산에서 현인 혁신을 일으켰다.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과학기술을 앞세워 생산을 1.5배로

해주버섯공장에서

얼아보고 풀어지면서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힘있게 불어넣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같은 원료를 가지고도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특파기자 동세웅



특파기자 박철, 사진 분사기자 리동규

시대를 격동시키는 기적을 창조한 위력한 정치사업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을 놓고

한다던 것이었다. 두루기 물막이 구간이 좁아질수록 날마다가 어떻게 기술을 부릴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무렵에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된 서현철동무였다.

건설자들의 가슴속에 신념의 제방부터 쌓자!

이것이 대중의 정신평발통에서 당위원회가 내준 진자였다.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과제가 적혀있는 수첩을 가지고다니며 학습하는 기쁨이 세워졌다. 문답식학습경연도 당, 근로단체조직별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학습을 통하여 조선은 결심한다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심장마다에 새겨넣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하였다.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한다던 것이었다. 두루기 물막이 구간이 좁아질수록 날마다가 어떻게 기술을 부릴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과제가 적혀있는 수첩을 가지고다니며 학습하는 기쁨이 세워졌다. 문답식학습경연도 당, 근로단체조직별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학습을 통하여 조선은 결심한다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심장마다에 새겨넣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하였다.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한다던 것이었다. 두루기 물막이 구간이 좁아질수록 날마다가 어떻게 기술을 부릴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과제가 적혀있는 수첩을 가지고다니며 학습하는 기쁨이 세워졌다. 문답식학습경연도 당, 근로단체조직별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학습을 통하여 조선은 결심한다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심장마다에 새겨넣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하였다.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한다던 것이었다. 두루기 물막이 구간이 좁아질수록 날마다가 어떻게 기술을 부릴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과제가 적혀있는 수첩을 가지고다니며 학습하는 기쁨이 세워졌다. 문답식학습경연도 당, 근로단체조직별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학습을 통하여 조선은 결심한다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심장마다에 새겨넣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하였다.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한다던 것이었다. 두루기 물막이 구간이 좁아질수록 날마다가 어떻게 기술을 부릴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과제가 적혀있는 수첩을 가지고다니며 학습하는 기쁨이 세워졌다. 문답식학습경연도 당, 근로단체조직별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학습을 통하여 조선은 결심한다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심장마다에 새겨넣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하였다.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한다던 것이었다. 두루기 물막이 구간이 좁아질수록 날마다가 어떻게 기술을 부릴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과제가 적혀있는 수첩을 가지고다니며 학습하는 기쁨이 세워졌다. 문답식학습경연도 당, 근로단체조직별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학습을 통하여 조선은 결심한다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심장마다에 새겨넣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하였다.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한다던 것이었다. 두루기 물막이 구간이 좁아질수록 날마다가 어떻게 기술을 부릴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과제가 적혀있는 수첩을 가지고다니며 학습하는 기쁨이 세워졌다. 문답식학습경연도 당, 근로단체조직별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학습을 통하여 조선은 결심한다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심장마다에 새겨넣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하였다.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이들은 당장된 빛을 생산한 것으로써 수백의 인민을 기쁘게 한 것을 잊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그후 한달동안에 80여

드세찬 체육열풍으로 더 좋은 래일을 앞당긴다

본계연선도시 개성이 드세찬 체육열풍으로 불고있다. 최근년간 새차계 타오른 모범 체육강국건설의 불길속에 어딜 가나 혁명적열정과 광만으로 들끓으며 번영의 래일을 당겨가는 활력이 넘친 모습들이 차 넘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강국건설을 다그쳐야 전체 군대와 인민을 국방과 로동에 튼튼히 준비시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높이고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주체조선의 위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체육성 일꾼의 말대로 전국적으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모범체육강국건설운동의 선두에서 달려가고있는 개성시의 아침 분위기가 좋다. 오랜 역사 전통을 남긴 남대문과 남대문아파트를 비롯하여 개성시인민위원회, 개성시정보통신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대오를 짓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을 듯이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다.

매일 아침마다 도시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기쁜척 체육광장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체육활동이 온 하루 아니 온 한해를 들끓이게 해주는 개성시인민위원회, 개성시정보통신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대오를 짓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을 듯이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다.

《모범체육강국건설을 다그쳐야 전체 군대와 인민을 국방과 로동에 튼튼히 준비시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높이고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주체조선의 위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범 체육강국건설을 다그쳐야

시의 영예를 쟁취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으로 활발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빈틈없는 조직사업과 광대한 전격력으로 힘있게 벌려온 투쟁의 나날에 체육발전의 물질적 토대가 튼튼히 다져졌다.

개성시청사건지대에 수만석의 관광지와 함께 높은 수준의 잔디축구장과 특상주로 등이 갖추어진것을 비롯하여 그들의 수영장, 개성시청사건지대에 있는 물놀이장과 같은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훌륭히 개건되었다.

시의 여러곳에 새로 꾸러진 로라스케트장, 배구장, 탁구장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벌리는 광란적인 화폭도 이채롭다.

개성시의 은덕원이 특색이다. 시에서 은덕원에 대한 개건보수를 통이 크게 작전하고 내민 결과 건축경비를 절약하여 달라진데다 실내수영장과 탁구장 그리고 야외에는 바드민턴장, 씨름터와 모래배구장까지 갖추어져 개성사람들의 체육 및 문화생활의 광만을 끝없이 꽃피우고있다.

여기에 시인의 기쁨, 공장, 농장, 학교를 비롯하여 동, 인민반들에 이르러까지 곳곳마다 늘어난것까지 넘두에 더하면 몇백여 개에 이르는 체육시설이 시의 곳곳에 세워져 있다. 개성시체육지도위원회 일꾼인 로형진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모범체육강국건설운동의

운동에서 앞서나가는 개성시의 성과를 두고

지안해와 달리 올해에는 포장 작업에 속하여 경기에 참가해가 지지 않았습다.》

모범체육강국건설운동은 단순한 실무사업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인민의 힘을 더욱 폭발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일꾼들부터 분발시키고 대중의 체육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며 체육발전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사업에 힘을 아끼지 않은 이곳 책임일꾼들의 전투적이며 선구자적인 투쟁기풍은 참으로 반발만 한 것이다.

어느 단위에 가보아도 체육열풍과 더불어 활기있게 전진하는 개성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의 광만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다.

축구, 롱구, 배구, 탁구, 씨름, 소조뿐 아니라 태권도소조도 실속있게 운영하여 온 나라의 태권도화에 이바지해가는 개성시성외공공장의 자랑도, 시적인 경기에서 우수한 가족분조배구 피복공장에서 2명의 가정부 인종업원들이 하루일을 마치고 집세워이러는 놀이터가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서로 도와주며 기운을 다달라기 위한 훈련에 열매 열중하는 시체육부문의 열매 열매가 다가오는것조차 감추지 못했다. 이것도 개성시체육부문의 자랑이다.

《우리 공장에서는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꾼들이 해마다 서로 다른 작업반에서 숙하여 배구, 탁구 등 다양한 종류의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습다. 이런 방법이 대중의 체육열의를 높일뿐 아니라 공장일꾼들의 사업에도 얼마나 좋은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운동에서 앞서나가는 개성시의 성과를 두고

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도 그 흔치 않던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리용하여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가는 나이런 청소년학생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다.

우리가 선속고급중학교를 찾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휴식 시간을 알리는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뜻깊은 선율이 울리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달려나왔다. 순간에 운동장이 철봉, 평행봉등을 하고 공다루기 등도 열심히 익히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으로 차 넘쳤다.

이런 광경은 날마다 펼쳐지는 것이라며 학교의 한 일꾼은 수십년전 몸소 이곳에 불멸의 자국을 새기며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면서 학교체육사업에 힘을 넣은 보람이 있어 해마다 체육광장이 넓어간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절세위원의 승고한 후대사장이 우리 당이 펼친 체육강국건설의 원대한 투쟁속에 더욱 빛나고있는 것을 보아 기쁘게 여기고 있는 개성시체육부문의 열매 열매가 다가오는것조차 감추지 못했다. 이것도 개성시체육부문의 자랑이다.

《우리 공장에서는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꾼들이 해마다 서로 다른 작업반에서 숙하여 배구, 탁구 등 다양한 종류의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습다. 이런 방법이 대중의 체육열의를 높일뿐 아니라 공장일꾼들의 사업에도 얼마나 좋은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운동에서 앞서나가는 개성시의 성과를 두고

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도 그 흔치 않던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리용하여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가는 나이런 청소년학생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다.

우리가 선속고급중학교를 찾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휴식 시간을 알리는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뜻깊은 선율이 울리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달려나왔다. 순간에 운동장이 철봉, 평행봉등을 하고 공다루기 등도 열심히 익히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으로 차 넘쳤다.

이런 광경은 날마다 펼쳐지는 것이라며 학교의 한 일꾼은 수십년전 몸소 이곳에 불멸의 자국을 새기며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면서 학교체육사업에 힘을 넣은 보람이 있어 해마다 체육광장이 넓어간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절세위원의 승고한 후대사장이 우리 당이 펼친 체육강국건설의 원대한 투쟁속에 더욱 빛나고있는 것을 보아 기쁘게 여기고 있는 개성시체육부문의 열매 열매가 다가오는것조차 감추지 못했다. 이것도 개성시체육부문의 자랑이다.

《우리 공장에서는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꾼들이 해마다 서로 다른 작업반에서 숙하여 배구, 탁구 등 다양한 종류의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습다. 이런 방법이 대중의 체육열의를 높일뿐 아니라 공장일꾼들의 사업에도 얼마나 좋은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운동에서 앞서나가는 개성시의 성과를 두고

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도 그 흔치 않던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리용하여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가는 나이런 청소년학생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다.

우리가 선속고급중학교를 찾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휴식 시간을 알리는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뜻깊은 선율이 울리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달려나왔다. 순간에 운동장이 철봉, 평행봉등을 하고 공다루기 등도 열심히 익히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으로 차 넘쳤다.

이런 광경은 날마다 펼쳐지는 것이라며 학교의 한 일꾼은 수십년전 몸소 이곳에 불멸의 자국을 새기며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면서 학교체육사업에 힘을 넣은 보람이 있어 해마다 체육광장이 넓어간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절세위원의 승고한 후대사장이 우리 당이 펼친 체육강국건설의 원대한 투쟁속에 더욱 빛나고있는 것을 보아 기쁘게 여기고 있는 개성시체육부문의 열매 열매가 다가오는것조차 감추지 못했다. 이것도 개성시체육부문의 자랑이다.

《우리 공장에서는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꾼들이 해마다 서로 다른 작업반에서 숙하여 배구, 탁구 등 다양한 종류의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습다. 이런 방법이 대중의 체육열의를 높일뿐 아니라 공장일꾼들의 사업에도 얼마나 좋은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운동에서 앞서나가는 개성시의 성과를 두고

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도 그 흔치 않던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리용하여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가는 나이런 청소년학생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다.

우리가 선속고급중학교를 찾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휴식 시간을 알리는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뜻깊은 선율이 울리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달려나왔다. 순간에 운동장이 철봉, 평행봉등을 하고 공다루기 등도 열심히 익히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으로 차 넘쳤다.

이런 광경은 날마다 펼쳐지는 것이라며 학교의 한 일꾼은 수십년전 몸소 이곳에 불멸의 자국을 새기며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면서 학교체육사업에 힘을 넣은 보람이 있어 해마다 체육광장이 넓어간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절세위원의 승고한 후대사장이 우리 당이 펼친 체육강국건설의 원대한 투쟁속에 더욱 빛나고있는 것을 보아 기쁘게 여기고 있는 개성시체육부문의 열매 열매가 다가오는것조차 감추지 못했다. 이것도 개성시체육부문의 자랑이다.

《우리 공장에서는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꾼들이 해마다 서로 다른 작업반에서 숙하여 배구, 탁구 등 다양한 종류의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습다. 이런 방법이 대중의 체육열의를 높일뿐 아니라 공장일꾼들의 사업에도 얼마나 좋은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운동에서 앞서나가는 개성시의 성과를 두고

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도 그 흔치 않던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리용하여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가는 나이런 청소년학생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다.

우리가 선속고급중학교를 찾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휴식 시간을 알리는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뜻깊은 선율이 울리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달려나왔다. 순간에 운동장이 철봉, 평행봉등을 하고 공다루기 등도 열심히 익히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으로 차 넘쳤다.

이런 광경은 날마다 펼쳐지는 것이라며 학교의 한 일꾼은 수십년전 몸소 이곳에 불멸의 자국을 새기며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면서 학교체육사업에 힘을 넣은 보람이 있어 해마다 체육광장이 넓어간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절세위원의 승고한 후대사장이 우리 당이 펼친 체육강국건설의 원대한 투쟁속에 더욱 빛나고있는 것을 보아 기쁘게 여기고 있는 개성시체육부문의 열매 열매가 다가오는것조차 감추지 못했다. 이것도 개성시체육부문의 자랑이다.

《우리 공장에서는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꾼들이 해마다 서로 다른 작업반에서 숙하여 배구, 탁구 등 다양한 종류의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습다. 이런 방법이 대중의 체육열의를 높일뿐 아니라 공장일꾼들의 사업에도 얼마나 좋은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민족의 향취 넘쳐나는 우리 생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날이 윤택해지는 우리 인민의 문화생활이 민족의 향취를 한껏 더해주며 얼마전 전국민족음식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봉사부, 대외봉사부

전국 민족음식 전시회장을 돌아 보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날이 윤택해지는 우리 인민의 문화생활이 민족의 향취를 한껏 더해주며 얼마전 전국민족음식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봉사부, 대외봉사부

전국 민족음식 전시회장을 돌아 보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날이 윤택해지는 우리 인민의 문화생활이 민족의 향취를 한껏 더해주며 얼마전 전국민족음식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봉사부, 대외봉사부

전국 민족음식 전시회장을 돌아 보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날이 윤택해지는 우리 인민의 문화생활이 민족의 향취를 한껏 더해주며 얼마전 전국민족음식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봉사부, 대외봉사부

전국 민족음식 전시회장을 돌아 보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날이 윤택해지는 우리 인민의 문화생활이 민족의 향취를 한껏 더해주며 얼마전 전국민족음식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봉사부, 대외봉사부

전국 민족음식 전시회장을 돌아 보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날이 윤택해지는 우리 인민의 문화생활이 민족의 향취를 한껏 더해주며 얼마전 전국민족음식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봉사부, 대외봉사부

전국 민족음식 전시회장을 돌아 보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날이 윤택해지는 우리 인민의 문화생활이 민족의 향취를 한껏 더해주며 얼마전 전국민족음식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봉사부, 대외봉사부

전국 민족음식 전시회장을 돌아 보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날이 윤택해지는 우리 인민의 문화생활이 민족의 향취를 한껏 더해주며 얼마전 전국민족음식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봉사부, 대외봉사부

유구한 전통과 독특한 개성을 살려

이번 전시회는 맛과 향기, 색깔이 독특하고 조형미가 있을 뿐 아니라 약리작용이 높은 우수한 민족음식과 각 지방의 특산물, 자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민족음식이 수많은 전시되어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가운데는 서성술집 공훈로 리사 황명실동무가 내놓은 20가지의 장절임도 있었다. 장지봉식당 지배인 한기순동무는 모래무지튀기와 아예정, 누치튀김을 비롯한 특색있는 민족음식을 준비하면서 음식들의 맛과 향기, 약리작용을

유구한 전통과 독특한 개성을 살려

이번 전시회는 맛과 향기, 색깔이 독특하고 조형미가 있을 뿐 아니라 약리작용이 높은 우수한 민족음식과 각 지방의 특산물, 자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민족음식이 수많은 전시되어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가운데는 서성술집 공훈로 리사 황명실동무가 내놓은 20가지의 장절임도 있었다. 장지봉식당 지배인 한기순동무는 모래무지튀기와 아예정, 누치튀김을 비롯한 특색있는 민족음식을 준비하면서 음식들의 맛과 향기, 약리작용을

유구한 전통과 독특한 개성을 살려

이번 전시회는 맛과 향기, 색깔이 독특하고 조형미가 있을 뿐 아니라 약리작용이 높은 우수한 민족음식과 각 지방의 특산물, 자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민족음식이 수많은 전시되어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가운데는 서성술집 공훈로 리사 황명실동무가 내놓은 20가지의 장절임도 있었다. 장지봉식당 지배인 한기순동무는 모래무지튀기와 아예정, 누치튀김을 비롯한 특색있는 민족음식을 준비하면서 음식들의 맛과 향기, 약리작용을

유구한 전통과 독특한 개성을 살려

이번 전시회는 맛과 향기, 색깔이 독특하고 조형미가 있을 뿐 아니라 약리작용이 높은 우수한 민족음식과 각 지방의 특산물, 자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민족음식이 수많은 전시되어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가운데는 서성술집 공훈로 리사 황명실동무가 내놓은 20가지의 장절임도 있었다. 장지봉식당 지배인 한기순동무는 모래무지튀기와 아예정, 누치튀김을 비롯한 특색있는 민족음식을 준비하면서 음식들의 맛과 향기, 약리작용을

유구한 전통과 독특한 개성을 살려

이번 전시회는 맛과 향기, 색깔이 독특하고 조형미가 있을 뿐 아니라 약리작용이 높은 우수한 민족음식과 각 지방의 특산물, 자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민족음식이 수많은 전시되어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가운데는 서성술집 공훈로 리사 황명실동무가 내놓은 20가지의 장절임도 있었다. 장지봉식당 지배인 한기순동무는 모래무지튀기와 아예정, 누치튀김을 비롯한 특색있는 민족음식을 준비하면서 음식들의 맛과 향기, 약리작용을

유구한 전통과 독특한 개성을 살려

이번 전시회는 맛과 향기, 색깔이 독특하고 조형미가 있을 뿐 아니라 약리작용이 높은 우수한 민족음식과 각 지방의 특산물, 자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민족음식이 수많은 전시되어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가운데는 서성술집 공훈로 리사 황명실동무가 내놓은 20가지의 장절임도 있었다. 장지봉식당 지배인 한기순동무는 모래무지튀기와 아예정, 누치튀김을 비롯한 특색있는 민족음식을 준비하면서 음식들의 맛과 향기, 약리작용을

유구한 전통과 독특한 개성을 살려

이번 전시회는 맛과 향기, 색깔이 독특하고 조형미가 있을 뿐 아니라 약리작용이 높은 우수한 민족음식과 각 지방의 특산물, 자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민족음식이 수많은 전시되어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가운데는 서성술집 공훈로 리사 황명실동무가 내놓은 20가지의 장절임도 있었다. 장지봉식당 지배인 한기순동무는 모래무지튀기와 아예정, 누치튀김을 비롯한 특색있는 민족음식을 준비하면서 음식들의 맛과 향기, 약리작용을

유구한 전통과 독특한 개성을 살려

이번 전시회는 맛과 향기, 색깔이 독특하고 조형미가 있을 뿐 아니라 약리작용이 높은 우수한 민족음식과 각 지방의 특산물, 자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민족음식이 수많은 전시되어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가운데는 서성술집 공훈로 리사 황명실동무가 내놓은 20가지의 장절임도 있었다. 장지봉식당 지배인 한기순동무는 모래무지튀기와 아예정, 누치튀김을 비롯한 특색있는 민족음식을 준비하면서 음식들의 맛과 향기, 약리작용을

독자의 편지

저의 딸이 선천성심장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은것은 태어난지 두달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갖 태어난 아이가 그런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후시 잘못 들은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 하였습니다.

딸이 커가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나중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때때로 정신을 차린 저는 무작정 조전직심장합병으로 달려갔습니다.

독자의 편지

저의 딸이 선천성심장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은것은 태어난지 두달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갖 태어난 아이가 그런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후시 잘못 들은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 하였습니다.

딸이 커가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나중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때때로 정신을 차린 저는 무작정 조전직심장합병으로 달려갔습니다.

독자의 편지

저의 딸이 선천성심장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은것은 태어난지 두달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갖 태어난 아이가 그런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후시 잘못 들은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 하였습니다.

딸이 커가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나중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때때로 정신을 차린 저는 무작정 조전직심장합병으로 달려갔습니다.

독자의 편지

저의 딸이 선천성심장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은것은 태어난지 두달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갖 태어난 아이가 그런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후시 잘못 들은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 하였습니다.

딸이 커가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나중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때때로 정신을 차린 저는 무작정 조전직심장합병으로 달려갔습니다.

독자의 편지

저의 딸이 선천성심장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은것은 태어난지 두달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갖 태어난 아이가 그런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후시 잘못 들은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 하였습니다.

딸이 커가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나중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때때로 정신을 차린 저는 무작정 조전직심장합병으로 달려갔습니다.

독자의 편지

저의 딸이 선천성심장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은것은 태어난지 두달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갖 태어난 아이가 그런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후시 잘못 들은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 하였습니다.

딸이 커가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나중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때때로 정신을 차린 저는 무작정 조전직심장합병으로 달려갔습니다.

독자의 편지

저의 딸이 선천성심장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은것은 태어난지 두달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갖 태어난 아이가 그런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후시 잘못 들은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 하였습니다.

딸이 커가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나중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때때로 정신을 차린 저는 무작정 조전직심장합병으로 달려갔습니다.

독자의 편지

저의 딸이 선천성심장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은것은 태어난지 두달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갖 태어난 아이가 그런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후시 잘못 들은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 하였습니다.

딸이 커가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나중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때때로 정신을 차린 저는 무작정 조전직심장합병으로 달려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유적들

창문이 거의 나 없는데 밖으로 통하는 좁은 복도가 창문을 대신하였다.

마을에는 공공건물로서 학교와 회관 등이 건설되었으며 건물 사이사이를 누비듯이 좁은 도로가 복잡하게 건설되었다.

모든 건물들은 전통을 굳히지 않고서 2층은 마구간과 식량창고로, 3층이상부터는 살림방으로 리용되었다. 집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적들

창문이 거의 나 없는데 밖으로 통하는 좁은 복도가 창문을 대신하였다.

마을에는 공공건물로서 학교와 회관 등이 건설되었으며 건물 사이사이를 누비듯이 좁은 도로가 복잡하게 건설되었다.

모든 건물들은 전통을 굳히지 않고서 2층은 마구간과 식량창고로, 3층이상부터는 살림방으로 리용되었다. 집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적들

창문이 거의 나 없는데 밖으로 통하는 좁은 복도가 창문을 대신하였다.

마을에는 공공건물로서 학교와 회관 등이 건설되었으며 건물 사이사이를 누비듯이 좁은 도로가 복잡하게 건설되었다.

모든 건물들은 전통을 굳히지 않고서 2층은 마구간과 식량창고로, 3층이상부터는 살림방으로 리용되었다. 집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적들

창문이 거의 나 없는데 밖으로 통하는 좁은 복도가 창문을 대신하였다.

마을에는 공공건물로서 학교와 회관 등이 건설되었으며 건물 사이사이를 누비듯이 좁은 도로가 복잡하게 건설되었다.

모든 건물들은 전통을 굳히지 않고서 2층은 마구간과 식량창고로, 3층이상부터는 살림방으로 리용되었다. 집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적들

창문이 거의 나 없는데 밖으로 통하는 좁은 복도가 창문을 대신하였다.

마을에는 공공건물로서 학교와 회관 등이 건설되었으며 건물 사이사이를 누비듯이 좁은 도로가 복잡하게 건설되었다.

모든 건물들은 전통을 굳히지 않고서 2층은 마구간과 식량창고로, 3층이상부터는 살림방으로 리용되었다. 집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적들

창문이 거의 나 없는데 밖으로 통하는 좁은 복도가 창문을 대신하였다.

마을에는 공공건물로서 학교와 회관 등이 건설되었으며 건물 사이사이를 누비듯이 좁은 도로가 복잡하게 건설되었다.

모든 건물들은 전통을 굳히지 않고서 2층은 마구간과 식량창고로, 3층이상부터는 살림방으로 리용되었다. 집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적들

창문이 거의 나 없는데 밖으로 통하는 좁은 복도가 창문을 대신하였다.

마을에는 공공건물로서 학교와 회관 등이 건설되었으며 건물 사이사이를 누비듯이 좁은 도로가 복잡하게 건설되었다.

모든 건물들은 전통을 굳히지 않고서 2층은 마구간과 식량창고로, 3층이상부터는 살림방으로 리용되었다. 집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적들

창문이 거의 나 없는데 밖으로 통하는 좁은 복도가 창문을 대신하였다.

마을에는 공공건물로서 학교와 회관 등이 건설되었으며 건물 사이사이를 누비듯이 좁은 도로가 복잡하게 건설되었다.

모든 건물들은 전통을 굳히지 않고서 2층은 마구간과 식량창고로, 3층이상부터는 살림방으로 리용되었다. 집들은

백도라지애의 비전정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부모가 한세육활동을 맡았을 지도하여 농촌학교 학생들이 전국적인 축구경기에 모이도록 참가하게 하고 전국적인 수영경기에서는 순위에 입선하게 하는 자랑을 꽃피웠다.

그런가하면 안해는 살려나오는 울헤에도 태양의 성지에 더 활짝 꽃피었다. 그와 더불어 라선시에서 전회회의 기적을 펼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인민사랑을 새로운 후대교육사업과도 끝없이 빛내줄 부모의 마음도 더욱 굳건해졌다.

태양의 성지에 해마다 활짝 피어나는 백도라지애는 그래서 더없이 희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렇듯 불같은 인민의 마음, 한없이 순결한 충정의 마음이 비껴없이...

본사기자 리진명

백도라지애의 비전정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부모가 한세육활동을 맡았을 지도하여 농촌학교 학생들이 전국적인 축구경기에 모이도록 참가하게 하고 전국적인 수영경기에서는 순위에 입선하게 하는 자랑을 꽃피웠다.

그런가하면 안해는 살려나오는 울헤에도 태양의 성지에 더 활짝 꽃피었다. 그와 더불어 라선시에서 전회회의 기적을 펼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인민사랑을 새로운 후대교육사업과도 끝없이 빛내줄 부모의 마음도 더욱 굳건해졌다.

태양의 성지에 해마다 활짝 피어나는 백도라지애는 그래서 더없이 희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렇듯 불같은 인민의 마음, 한없이 순결한 충정의 마음이 비껴없이...

본사기자 리진명

백도라지애의 비전정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부모가 한세육활동을 맡았을 지도하여 농촌학교 학생들이 전국적인 축구경기에 모이도록 참가하게 하고 전국적인 수영경기에서는 순위에 입선하게 하는 자랑을 꽃피웠다.

그런가하면 안해는 살려나오는 울헤에도 태양의 성지에 더 활짝 꽃피었다. 그와 더불어 라선시에서 전회회의 기적을 펼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인민사랑을 새로운 후대교육사업과도 끝없이 빛내줄 부모의 마음도 더욱 굳건해졌다.

태양의 성지에 해마다 활짝 피어나는 백도라지애는 그래서 더없이 희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렇듯 불같은 인민의 마음, 한없이 순결한 충정의 마음이 비껴없이...

본사기자 리진명

백도라지애의 비전정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부모가 한세육활동을 맡았을 지도하여 농촌학교 학생들이 전국적인 축구경기에 모이도록 참가하게 하고 전국적인 수영경기에서는 순위에 입선하게 하는 자랑을 꽃피웠다.

그런가하면 안해는 살려나오는 울헤에도 태양의 성지에 더 활짝 꽃피었다. 그와 더불어 라선시에서 전회회의 기적을 펼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인민사랑을 새로운 후대교육사업과도 끝없이 빛내줄 부모의 마음도 더욱 굳건해졌다.

태양의 성지에 해마다 활짝 피어나는 백도라지애는 그래서 더없이 희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렇듯 불같은 인민의 마음, 한없이 순결한 충정의 마음이 비껴없이...

본사기자 리진명

백도라지애의 비전정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부모가 한세육활동을 맡았을 지도하여 농촌학교 학생들이 전국적인 축구경기에 모이도록 참가하게 하고 전국적인 수영경기에서는 순위에 입선하게 하는 자랑을 꽃피웠다.

그런가하면 안해는 살려나오는 울헤에도 태양의 성지에 더 활짝 꽃피었다. 그와 더불어 라선시에서 전회회의 기적을 펼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인민사랑을 새로운 후대교육사업과도 끝없이 빛내줄 부모의 마음도 더욱 굳건해졌다.

태양의 성지에 해마다 활짝 피어나는 백도라지애는 그래서 더없이 희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렇듯 불같은 인민의 마음, 한없이 순결한 충정의 마음이 비껴없이...

본사기자 리진명

백도라지애의 비전정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부모가 한세육활동을 맡았을 지도하여 농촌학교 학생들이 전국적인 축구경기에 모이도록 참가하게 하고 전국적인 수영경기에서는 순위에 입선하게 하는 자랑을 꽃피웠다.

그런가하면 안해는 살려나오는 울헤에도 태양의 성지에 더 활짝 꽃피었다. 그와 더불어 라선시에서 전회회의 기적을 펼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인민사랑을 새로운 후대교육사업과도 끝없이 빛내줄 부모의 마음도 더욱 굳건해졌다.

태양의 성지에 해마다 활짝 피어나는 백도라지애는 그래서 더없이 희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렇듯 불같은 인민의 마음, 한없이 순결한 충정의 마음이 비껴없이...

본사기자 리진명

백도라지애의 비전정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부모가 한세육활동을 맡았을 지도하여 농촌학교 학생들이 전국적인 축구경기에 모이도록 참가하게 하고 전국적인 수영경기에서는 순위에 입선하게 하는 자랑을 꽃피웠다.

그런가하면 안해는 살려나오는 울헤에도 태양의 성지에 더 활짝 꽃피었다. 그와 더불어 라선시에서 전회회의 기적을 펼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인민사랑을 새로운 후대교육사업과도 끝없이 빛내줄 부모의 마음도 더욱 굳건해졌다.

태양의 성지에 해마다 활짝 피어나는 백도라지애는 그래서 더없이 희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렇듯 불같은 인민의 마음, 한없이 순결한 충정의 마음이 비껴없이...

본사기자 리진명

백도라지애의 비전정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부모가 한세육활동을 맡았을 지도하여 농촌학교 학생들이 전국적인 축구경기에 모이도록 참가하게 하고 전국적인 수영경기에서는 순위에 입선하게 하는 자랑을 꽃피웠다.

그런가하면 안해는 살려나오는 울헤에도 태양의 성지에 더 활짝 꽃피었다. 그와 더불어 라선시에서 전회회의 기적을 펼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인민사랑을 새로운 후대교육사업과도 끝없이 빛내줄 부모의 마음도 더욱 굳건해졌다.

태양의 성지에 해마다 활짝 피어나는 백도라지애는 그래서 더없이 희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렇듯 불같은 인민의 마음, 한없이 순결한 충정의 마음이 비껴없이...

본사기자 리진명

별리 운영되고있는 어업조사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의 주요어업국들에서는 어업조사선을 운영하고있다. 여러 나라에서 어업조사선과 해양환경이 심히 변화되고있는 오늘날의 조건에서 어업조사선을 매우 중요시하고있으며 보다 현대화하고 있다.

최근 어업조사선들의 주요 목적과 장비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업조사선은 어종별로 현존 자원량을 평가하며 관측과 조사 사업을 편리하게 하고 겨울이나 상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조사를 하는 최최효율성을 해마다 바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부단히 변화는 어업자련량과 해양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의 주요어업국들에서는 어업조사선을 운영하고있다. 여러 나라에서 어업조사선과 해양환경이 심히 변화되고있는 오늘날의 조건에서 어업조사선을 매우 중요시하고있으며 보다 현대화하고 있다.

최근 어업조사선들의 주요 목적과 장비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업조사선은 어종별로 현존 자원량을 평가하며 관측과 조사 사업을 편리하게 하고 겨울이나 상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조사를 하는 최최효율성을 해마다 바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부단히 변화는 어업자련량과 해양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의 주요어업국들에서는 어업조사선을 운영하고있다. 여러 나라에서 어업조사선과 해양환경이 심히 변화되고있는 오늘날의 조건에서 어업조사선을 매우 중요시하고있으며 보다 현대화하고 있다.

최근 어업조사선들의 주요 목적과 장비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업조사선은 어종별로 현존 자원량을 평가하며 관측과 조사 사업을 편리하게 하고 겨울이나 상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조사를 하는 최최효율성을 해마다 바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부단히 변화는 어업자련량과 해양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의 주요어업국들에서는 어업조사선을 운영하고있다. 여러 나라에서 어업조사선과 해양환경이 심히 변화되고있는 오늘날의 조건에서 어업조사선을 매우 중요시하고있으며 보다 현대화하고 있다.

최근 어업조사선들의 주요 목적과 장비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업조사선은 어종별로 현존 자원량을 평가하며 관측과 조사 사업을 편리하게 하고 겨울이나 상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조사를 하는 최최효율성을 해마다 바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부단히 변화는 어업자련량과 해양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의 주요어업국들에서는 어업조사선을 운영하고있다. 여러 나라에서 어업조사선과 해양환경이 심히 변화되고있는 오늘날의 조건에서 어업조사선을 매우 중요시하고있으며 보다 현대화하고 있다.

최근 어업조사선들의 주요 목적과 장비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업조사선은 어종별로 현존 자원량을 평가하며 관측과 조사 사업을 편리하게 하고 겨울이나 상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조사를 하는 최최효율성을 해마다 바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부단히 변화는 어업자련량과 해양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의 주요어업국들에서는 어업조사선을 운영하고있다. 여러 나라에서 어업조사선과 해양환경이 심히 변화되고있는 오늘날의 조건에서 어업조사선을 매우 중요시하고있으며 보다 현대화하고 있다.

최근 어업조사선들의 주요 목적과 장비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업조사선은 어종별로 현존 자원량을 평가하며 관측과 조사 사업을 편리하게 하고 겨울이나 상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조사를 하는

